

한방병원 난립 속 '입원 브로커' 기승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상> 광주 보험사기 특징과 현황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총 464건의 보험사기 범죄가 적발돼 1138명이 붙잡히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보험사기 특징은 일부이긴 하지만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브로커를 고용해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방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기투자비용으로 개업할 수 있다는 점, 짧은 기간 동안 개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의료기록 폐기 등 증거인멸이 쉽고 처벌이 가볍다는 점 때문에 불법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 중 일부는 현재도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온상...광주 지난해 464건 1138명 적발
호남지역 한방병원 135곳으로 전체 43%...갈수록 조직화·대형화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광주지역은 산업기반이 타지역에 비해 취약하고, 한의학·보건행정·보험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아 사무장 병원이나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에서 젊은 층의 입원브로커가 등장하고 성별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취약한 한방병원과 브로커가 난립하면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직화·대형화로 진화하는 추세다.

7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중인 한방병원은 313곳으로 이 가운데

26.5%인 83곳이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23곳)과 전북(29곳)까지 더하면 호남지역에서 운영중인 한방병원은 135곳으로 전체 한방병원의 43.1%가 집중돼 있다.

광주에서 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탓에 광주지역 자체가 보험사의 요주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부 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증가하고, 일반 가입자를 보험사기 대상으로 의심받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방병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69곳, 2015년 84곳, 2016년 91곳, 2017년 99곳, 2018년 89곳으로 나타났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의 증가로 잠시 주춤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 중 일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으로, 과다 허위 진료 및 입원 등을 조작하고 있다는 게 보

험업계의 설명이다. 일부에선 환자 유치에 눈먼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가 결탁해 환자알선 등 브로커 활동을 하고, 병원 관련자는 허위입원 교사 및 방조, 고액확보 영업활동, 현장조사 방해 등의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검찰 퇴직자 출신이 주를 이루는 보험사특수조사팀(SIU)의 일부조차도 사무장병원과 결탁하거나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투자한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환자들 또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허위로 입원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

광주경찰도 이 같은 일부 한방병원의 보험사기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조직까지 구성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의술, 외박은 물론이고 각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유치 경쟁을 하고있다"면서 "일반 시민이 생형과 미용 같은 서비스에 속아 보험사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희 기자 jusbh@kwangju.co.kr

5·18 때 전두환 광주방문 증언한 美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 입국...서울·광주서 9·10일 증언

5·18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의 광주 방문을 증언한 주한미군 501여단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증언하는 자리를 갖는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남태평양 피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5·18기념재단 초청으로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했다.

김씨는 9일 서울 국회 정론관 또는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씨의 광주방문이나 발표 명령, 자신이 미국 국방성에 보고한 내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10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중묘지를 참배하고 5·18 유공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한 증언대회(가칭)에 참석한다.

김씨는 지난 3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1980년) 5월 21일 점심시간 즈음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헬기를 타고 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회의를 했다"며 "이 회의에서 사살명령(발포명령)이 하달됐다는 점을 상부에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3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당일 선착순 배부

광주지법 오는 13일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10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방청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65석)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배정석(38세) 방청권도 이날 오후 함께 배부한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

과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낸 상태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후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3월 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피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의 차량에 불 지른 40대 조현병 의심환자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7일 다른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난 김모(43)씨를 차량 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종이박스 및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김모(여·23)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인근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차량에 불을 낸 김씨는

연기가 발생하자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스스로 불을 껐으며, 이후 10분 뒤 해당 오피스텔 근처 길거리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북구 운안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해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차에 불을 지르려는 하늘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정신질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출근시간대 버스정류장 등서 신체 상습 노출한 공무원



○출근시간대 버스 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 상습적으로 노출한 공무원이 철창행.

○7일 전북 군산경찰에 따르면 공연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

체 일부를 노출했다는 것.

○A씨는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자로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해당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폐결핵 정확한 병명 몰랐어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줘도 돼"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A씨가 보험금 2억원을 달라며 요구했고,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동부경찰에서 감찰로 송치되고 있다.

'의붓딸 살해' 30대 계부 검찰 송치

친모 혐의 입증 수사 확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7일 광주동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행 호송차에 오르면서

숨진 의붓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억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챘는 것으로 대담을 대신했다. 친모 유모(39)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께 아내 유씨와 함께 무안군 한 농로 차량내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시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엄마 유모씨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씨가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은 점, 딸 시신을 버리려고 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J2 5 point
2 7 6 2 1 4 9 0 2

J1 4 point
4 1 2 7 8 9 0 0 2

J1* 3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